

## 행복한교회 목장 예배 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목자목녀님들께 배포해드린 목장모임 표준안 참조)

### 1. 식사 모임 (애찬)

-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밥=가족, 간식=손님).
- VIP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집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2. 자녀와의 시간 (올리브 블레싱)

- 자녀가 한 명(태아포함)이라도 있으면 모든 목장에서 반드시 올리브블레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올리브블레싱의 목적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족공동체(목장)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들끼리 앉지 않고 어른들이 사이사이에 앉아서 찬양 1-2곡을 부릅니다.
- 나이순으로 감사한 것과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눕니다(목회일기에 포함).
-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 어린이 목자 또는 어른 목자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 목장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없을 경우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 올리브블레싱 후 어린이 목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목장을 따로 진행합니다.

### 3. 찬양을 통한 경배(worship) - 찬양부장이 인도

### 4. 지난주일 말씀 나누기(20분 이내)

- 말씀나누기 진행자가 담당합니다(성경지식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기에 초신자가 맡으면 좋습니다).
- 모든 목원이 간단하게 돌아가며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나눕니다.
- 2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나누는 중 다른 사람이 끼어들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수준에서 깨달은 내용을 나눕니다.

### 5. 연합교회 광고 나누기

- 주보를 활용합니다.(VIP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 6. 목회자 칼럼 읽기

- 지난주 목회칼럼을 읽어줍니다.(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 공유)

### 7. 목장 약속문 함께 읽기

### 8. 삶 나누기

- 지난주 기도제목에 대해 응답받은 내용이 있으면 먼저 나눕니다.
- 감사했던 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나눔 시 “기도하면 됩니다” 식의 교과서적인 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성경구절만 인용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붙들고 승리한 경험을 말해야 합니다.
-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 목장에 나온 지 오래된 분은 깊이는 유지하되 핵심만 간단히 나누고 VIP 등 새로 오신 분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9.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 모든 나눔 후 두 명 정도씩(부부, 가족 등) 묶어서 짧게 중보기도합니다.
- 목원 가정에서 모임을 가진 경우 마지막에 목자가 장소를 제공한 목원을 위해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 10. 선교지와 VIP를 위한 기도

- 후원 선교사님 소식이 있으면 나누고 선교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 VIP는 가족, 친지보다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 자주 만나고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VIP를 위한 중보기도문을 활용합니다.

### 11. 목회일기 작성

## 목장모임 말씀 나눔시

(7월23일 주일설교/디모데전서2:8/믿음으로 살아보려는 아버지들에게!)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아빠들이 출장 등의 일로 집을 떠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이 마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남편과 아빠가 집에 있다고 해도 집에서 그리 큰 존재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의 생활은 거의 모든 것이 엄마와 아내의 주도 하에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내와 엄마가 그것을 주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사고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사람을 알려고 할 때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니?” 이렇게 묻곤 하는 것처럼, 유대문화에서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더 세심하고 헌신적인데도 우리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공허해하고, 아버지의 인정으로 채워지지 못한 그 부분은 남들의 인정으로라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아버지됨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보이신 아버지됨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도록 부름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2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예수님의 세례 때이고 두번째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서 어쩌면 두렵기도 하셨을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이 말씀은 큰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셋째,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한한 긍정의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아버지께 인정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땅의 아버지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대답을 우리의 삶으로 해줘야 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대답! 자신의 정체성과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관을 알려줘야 할 사람들은 아버지들입니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자존감을 배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양사람들은 서양사람들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유는 가부장적인 가정 분위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긍정의 말, 인정의 말을 많이 듣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불러 넣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같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버지는 진정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통하여 관계가 형성될 때만 가르침도 통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낭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 앞에서 늘 ‘멈추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묻는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는 칭찬입니다. 아버지에게 축복과 칭찬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칭찬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마3:16) 바라기는 아름다운 신앙은 있고, 잘못된 가문의 분위기는 끊는 아버지들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집안의 운전대를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아버지들로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자녀와의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자녀에게 보인 관심과 칭찬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럴 때 자녀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목회자 칼럼

### 가정교회, 삶공부, 주일연합예배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 예배당 한 편에는 가정교회 세 축이라고 되어 있는 로고가 그려진 현수막이 늘 걸려 있습니다. 각각의 동그라미에는 목장모임(가정교회), 삶공부, 주일연합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축이 잘 맞물려 돌아가면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보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을 그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만든 것은 아니고 가정교회를 하는 모든 교회는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나 새가족들을 위해서 이 세 축의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가정교회를 목장모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가정교회라고 부르는가? 대답을 들으면 웃으시겠지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선교지에 소개할 때 House Church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 모두 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큼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정에서 모입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편한 예배당 소그룹실과 방바닥에 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는(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에어컨이 없이 사시는 경우도 있더라구요ㅎㅎ) 가정집, 이 둘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후자가 훨씬 더 “교회”의 모습에 가깝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티타임은 가정으로 갑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찬양, 깊은 나눔, 기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삶공부는 성경공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공부가 지식적인 공부로 흐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신앙성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공부는 삶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더 되뇌기 위해서 ‘삶공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셋째, 주일연합예배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교회의 30개의 목장을 단지 소그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작은 교회로 봅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교회가 해야 하는 5가지를(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주중에 한번씩 다 가정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들이 주일에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주일예배를 ‘주일(목장)연합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손목사-

☎ 340068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11번길90-23(반석동661)

☎ (042)826-9191~4, FAX(042)822-0691

http://www.inhappy.org

##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는 2층 새가족실에서 담임목사와 함께 식사하며 교회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3면에 있는 <교회등록절차>를 보시고 새가족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1. 감사

유아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과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 중고등부 가정교회 연합수련회

- 1)일시 및 장소 : 24(월)~26일(수) 월요일 오후 1시 등록시작 / 행복한교회 본관 및 교육관
- 2)주제 :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 3)주최 : 가정교회사역원 청소년팀
- 4)인원 : 학생 60명, 교사 및 사역자 40명
- 5)청소년 목장을 꿈꾸며 전환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연합했습니다. 그 목표와 취지대로 가정교회에 대해 잘 알아가고 배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총목자모임

7월 총목자모임이 29일(토) 오후5시30분에 있습니다.

### 4. 기도의 삶 제3기 수료식 & 4기 세미나

- 1)다음 주일에는 제3기 기도의 삶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 2)9월부터 시작할 제4기 중보기도를 위한 세미나가 8월3일(목)부터 4회 있습니다. 주보 삽지로 들어 있는 안내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3)중고등부 수련회 관계로 월~수요일 중보기도실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 5.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 1)18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시는 중보기도팀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2)월요일 : 예배를 위한 중보 / 화요일 : VIP를 위한 중보, 담임목회자를 위한 중보,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 가정을 위한 중보 / 목요일 : 세상을 위한 중보, 교회를 위한 중보, 목자목녀를 위한 중보, 치유를 위한 중보 / 토요일 : 교회사역을 위한 중보
- 3)각자가 속한 중보기도팀에서 같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①합심기도 : 단톡방에서 정한 요일, 같은 시간에 기도(1회)

②개인기도 : 동일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2회 이상)

\*중보기도신청서를 냈는데 연락이 오지 않으신 분들이나, 신청하여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주세요.

### 6. <말씀보화찾기> 성경 통독 26주차

- 1)에스겔 8장 ~ 37장까지. 2)말씀수첩 구입은 1층 교역자실에서.

### 7. 교우소식

- 1)등록: 정종순 권사, 수정목장(윤순호목자)  
박윤진 자매, 일본도교목장(이지현목자)  
조유라 자매, 수마트라목장(김민주목자)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2)입원: 송인범 집사 삼성서울병원(26일 입원, 28일 수술)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3)공연: 정은영 집사(필리핀아랏 목장), 대전시립연정국악원, 27일(목) 오후 7:30분

## 성구암송

여호수아 24:15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